

보도시점 2026. 4. 29. (수) 11:00
4. 30. (목) 조간 배포 2026. 4. 29. (수) 09:00

반려동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동물의료 제도개선 TF' 논의 개시

- 동물의료 신뢰 제고, 의료서비스 개선 위한 민관 협의체 본격 가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동물의료 서비스 향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동물의료 제도개선 TF'를 발족하고 4월 29일(수)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TF는 동물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고, 정부, 학계, 수의계, 소비자단체, 지방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TF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익형 표준수가제도 도입 방안 ▲공공 동물병원 조성 ▲펫보험활성화 등을 포함한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옥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동물의료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동물복지정책국	책임자	과 장	정미영 (044-201-2651)
	반려산업동물의료과	담당자	사무관	김윤희 (044-201-2652)